

# 상담복지센터에서 드리는 월요편지

2013. 12. 2

높다는 것은 열정(Passion)에서 자비(Compassion)로 이동하는 것이다.

-알베르 까뮈-

연말이라 그런지.... 요즈음 들어 가정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부쩍 눈에 띕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할 수 없다는 말로 위로해 보지만, 일일이 도와줄 수 없음을 마음 한 구석 미안한 마음 가득안고... 월요편지를 시작합니다.

3일에는 학교지원단회의가 있었습니다. 학교부적응으로 인하여 학업중단을 초래하는 청소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이번 회의에는 교장선생님들과 학생부장 선생님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게 되면 후속 조치로서 이러한 기관의 활동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 드리는 자리가 되었고, 향후 전 지역의 학교 측에서 이로운 사업을 인지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해 주셨습니다. 그러게요.... 홍보를 잘 해서.. 아이들이 더 이상 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 길 한걸음에 달려와 주신 15개 시,군 학교지원단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전에는 천안상업고등학교에 장학금 전달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손 때 묻은 정성으로 이루어진 두드림 장학금은 그야말로 아이들이 사랑 그 자체입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급우를 돕겠다는 친구들의 의지를 담아 교장선생님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의미 있게 다가왔던 일은 천안상고의 박준구 교장선생님을 만나 뵈었다는 것입니다. 박준구 교장선생님께서서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교육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신 교육계의 수장이셨습니다. 현재 한국중등학교협회 회장님을 역임하고 계시고, 천성중학교와 천안상고를 만드신 분이시기도 하며, 더 나아가 아이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구상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아이들이 뭔가를 만들어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드림 프로그램의 뽀뽀비즈라는 행사를 통해 아이들이 자신감을 찾고, 나아가 무엇인가를 해 보겠다는 동기를 만들 수 있는 터전이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며... 하루속히 청소년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야겠다는 희망을 갖습니다. 미약하나마 그런 초석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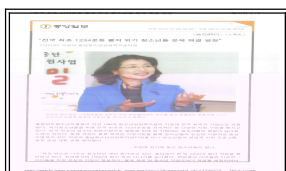
4일에는 희망포럼이 있었습니다. 'Control Smart'라는 제목으로 금년에는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점차 확대되어지고 있는 요즘, 보다 편안해지고 간편해진 반면 '중독'이라는 부정적인 부분들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인터넷치유학교를 진행하던 때에 일본 NHK방송에서 취재했던 일들이 생각납니다. 당시 방송을 기획했던 분의 초점은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였습니다. IT강국인 한국으로부터 일본의 스마트 중독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을 찾고자 했던 일들이 떠오르네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에게엔 스마트폰보다는 인터넷 중독이 훨씬 익숙한 단어였는데... 일년 사이에 인터넷 중독이란 말은 어느 새 뒷전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에 발빠른 대안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쁜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일이라면 한걸음에 달려오셔서 축사를 해주신 김장옥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두드림 '화타'동아리 아이들의 실력이 부쩍 늘어서 초청 공연에 나섰지 뭐니까?^^ 이제 일년도 안되었는데... 1388조끼를 단체복이라 입고 기타치고 노래하는 아이들이 암만 봐도 기특합니다. 7일 토요일에 천안시다문화지원센터 한국어종강식에서 기타 공연을 펼쳤답니다. 1388청소년지원단 연찬회에서 그 실력을 보여준다니... 기대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아이들이 무대에 선다는 것! 그리고 즐긴다는 것... 센터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쁘띠 스쿨... 학업중단 아이들의 작은 모임 이름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문화체험으로 영화 구경, 대학 탐방, 가족공예, 토피어리 등 다양한 경험들을 시켜주니... 아이들에게는 목요일이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날이 밝아지는 아이들의 모습에 임정인 선생님이 한결 뿌듯함을 느낀다며... 좋아합니다. 내년에 사업비 축소로쁘띠 예산이 없는데... '다음 주에는 뭐해요?'라고 묻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얼굴에 할 말이 없어 얼버무렸다고 속상해 하네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을 위한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전 주에는 '열 한시'라는 영화를 보았다네요. 영화 본 뒤 소감문 적성하는 얼굴들이 심각하네요. 뭔가 재미와 생각을 동시에 주었던 영화였나 봅니다. 꼭 보세요!^^



중앙일보 신문에 제 얼굴이 이렇게 크게 나왔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가문의 영광이라고 호들갑이네요. 얼굴 살 좀 빼고 찍을 걸... 1234운동으로 활짝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번 한 주도 열정과 자비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웃음으로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박영의 올림